

# 2021 국악창작곡 개발

## '제15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1차 예선 심사결과

### □ 심사 개요

- 심 사 명: 2021 국악창작곡개발-제15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1차 예선 심사
- 일시/장소: 2021년 4월 8일(목), 10:00~17:00 / 국악방송 10층 대회의실
- 심사위원 (※가나다순)

번호	이름	주요 프로필
1	김진이 (심사위원장)	- 전통예술 공연 및 문화콘텐츠 다수 기획 - '통기획' 대표
2	서정민	- 컨템포러리 국악듀오 '숨[su:m]' 멤버, '09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실험정신상' 수상 -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영국 워매드(WOMAD) 등 공연 - 개인 앨범 [COSMOS 25], [HOME] 발매
3	신창렬	- '21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예술감독 - '창작국악그룹 그림(The林)' 소속 - '17 KBS 국악대상' 단체 부분 및 전체 대상 수상 - 국악, 뮤지컬음악, 창극 등 다수 작곡
4	채수현	-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원 - 소리극 '황진이', 가무악극 '서동의 노래' 주역 - '17 KBS 국악대상' 민요상
5	한웅원	- '17 여우락페스티벌' 음악감독 - 제 100회 전국체전 음악감독 -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음악조감독 - '프렐류드', '한국남자' 멤버

- 심사항목 : 대중성(30%), 독창성과 창의성(30%), 국악적 요소의 창조적 계승(20%), 음악의 완성도(20%)

### □ 심사 결과

- 심사결과 : 총 20팀 선정 (노래곡 11팀, 연주곡 9팀) (\*접수번호순 표기)

접수번호	팀명	참가곡명	장르구분
8	Team. Odyssey	Odyssey	연주곡
12	시나위 현대국악	시나위	연주곡
14	IYAGI	二(평행)	노래곡
17	화백	쏘아 올린 작은 공, 어디로 갔을까?	연주곡
22	오뉴월	PIT-A-PAT	연주곡
25	시도	시도(Attempt)	연주곡
31	팀 소요유(逍遙遊)	기해별곡(己亥別曲)	노래곡
40	연리지	왼손으로 쓴 편지	연주곡
43	아늑	별	노래곡
47	예술극단 <비온디 엠>	도깨비 놀기 좋은 날	노래곡
49	조선 플로우	이방인 광시곡	노래곡
58	하냥	어냥천가래호	노래곡
59	Gukaz Project	Serendipity	연주곡

63	이나연	겨울 지나 봄	노래곡
67	Ensemble Cadenza(앙상블 카덴차)	回光返照(회광반조)	연주곡
69	창작 아티스트 오늘(ONEUL)	자유(FREE)	노래곡
76	프로젝트 앙상블 런	조선 가물란(코길이를 위한 헌정곡)	노래곡
78	JJAM	Urban Sinawi	연주곡
80	신수동 3평	불청객	노래곡
88	청바지	이것도 청춘?	노래곡

o 주요 심사평 (※가나다순)

이름	심사평
김진이 (심사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 본 공모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참여해 준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li> <li>- 총 88건의 작품 중 사업의 목적과 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20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21c한국음악프로젝트는 '국악창작곡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훌륭한 '음악 작품'의 탄생을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스타를 발굴하거나 불거리에 치중한 퍼포먼스 보다는 전통음악에 기반한 좋은 음악 작품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스타가 된대거나 이슈가 되는 것은 그 이후의 부가적인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li> <li>- 또한 단 한곡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모든 역량과 매력을 보여줘야 하는 콘테스트에서는 남들과 구별되는 개성, 독창성, 창의성 그리고 예술적 완성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li> <li>- 대중성이란 단지 쉽고 익숙한 것이 아닌 예술적 가치와 정서에 대한 공감과 설득, 획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음악인들이 기존의 음악어법을 답습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멋지게 풀어내 주길 기대합니다.</li> </ul>
서정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먼저 어려운 시국에 다양한 음악을 보여주어서 감사합니다. 예선 음악팀들을 살펴본 결과, 퍼포먼스, 국악기 중심, 크로스오버(밴드)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li> <li>- 먼저 국악기 중심 구성 팀들은 연주자가 직접 음악을 만들거나 작곡자 협업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연주자가 직접 음악을 만드는 팀은 도전적이며 주체적인 시도는 좋았으나 음악적 완성도가 다소 아쉬워 악기에 대한 고민을 더하기를 바라봅니다. 작곡자 협업팀은 작곡자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연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li> <li>- 크로스오버팀은 작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돋보여서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구성, 국악기 이해가 낮은 밴드 연주가 다소 밴드의 장점인 합주의 시너지 흐름을 방해했습니다.</li> <li>-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팀은 퍼포먼스 시도는 좋았으나 음악이 탄탄하게 완성된 후, 퍼포먼스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1c한국음악'이 중점이 아닌 그 외의 것들로 다소 치우치려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li> </ul>
신창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주구성의 확장성은 자유롭게 하되 전통성의 반영 및 음악적 독창성에 그 무게중심을 두고 심사평가 하였습니다.</li> <li>- 전통악기 구성과 서양 리듬악기(밴드) 그리고 보컬이 조화를 이루는 음악편성이 올해 역시 비교적 많았으며 노래곡과 연주곡의 배분이 균형감을 이루는 심사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li> <li>- 또한 그 안에서도 음악적 개연성에 걸맞는 비주얼 퍼포먼스는 부분적으로 수용하되 참가팀의 형평성과 음악적 범위에 비중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li> <li>- 올해도 새로운 창작음악의 가능성과 패기를 만날 수 있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응원합니다.</li> </ul>

채수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과 타 장르 간의 협업이 꾸준히 이어져가고 있는 만큼 이번 참가작품에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참가자들이 많았지만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게 구성하였는가?'를 주목하여 심사하였고 연주곡의 경우, 오히려 인원이 많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담백한 구성으로 완성도를 높인 곡들을 선정하였습니다.</li> <li>- 노래곡의 경우, 창작곡은 전통곡과 달리 사람의 감정, 의식 등을 담아 작곡된 곡이기 때문에 보컬이 곡을 해석하는대로 곡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전통곡을 부를 때의 기존 발성과 곡의 해석을 담은 노래를 부를 때의 발성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합니다.</li> <li>- 마지막으로 퍼포먼스를 따로 섭외하거나 연주를 하며 과도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였는데 '창작곡'의 개발이라는 취지가 담긴 프로젝트이니만큼 퍼포먼스보다는 음악의 완성도에 에너지를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li> </ul>
한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도 많은 분들께서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예선에 지원하셔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셨습니다.</li> <li>- 이번 예선에서는 전체적인 사운드 컨셉을 얼마나 밀도 있게 발전시켜 나갔는지, 그리고 음악 구성에 있어 얼마나 깊이 고민했고 섬세하게 만들어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선정하였습니다. 많은 팀들의 음악적인 고민들이 심사하면서도 깊이 느껴져 저에게도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li> <li>- 간혹 음악적으로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너무 많은 요소들이 음악에 투입되어 완성도를 떨어뜨리거나 음악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li> <li>- '독창성'이라는 요소는 어찌보면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져 음악과 밴드 안에서의 기본 구성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더 완성도 있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li> <li>- 다음 무대에 진출하신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모두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li> </ul>

## □ 향후 일정

구분	일시 및 장소	비고
<b>2차 예선 진출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b> - 2차 예선 순서 추천 - 예술감독 소개 및 멘토링/연습실 사용 일정 등 협의 - 2차 예선 기술협의서 작성 안내 등	4월 19일(월) / 국악방송 공개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2, DMS빌딩 12층)	- 팀대표 또는 작곡가 중 1~3인 참가 - 팀별 참가 요청시간 상이하므로 개별 안내 참고
<b>2차 예선 진출팀 대상 '예술감독/전문가 멘토링' 진행</b>	4월 말~5월 중순 / 외부 연습실 (예정)	- 멘토링 희망팀에 한해 진행
<b>2차 예선 (실연심사)</b>	<b>5월 22일(토)</b> / 국악방송 공개홀 (예정)	- 10팀 선정 예정

## □ 문의처

○ 국악방송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담당자 02-300-9973 / jinsaem@igbf.kr